

멸종위기종 맹꽂이 서식지 인근에 쓰레기·매연...대책 시급

광주시, 2022년 서구 화정근린공원 부지서 14마리 파악 울타리 등 조치 있으나...“보호 기준 모호 한계 여실”

광주시가 멸종위기생물인 ‘맹꽂이’ 서식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나, 실태 파악 외엔 보호 등 사실상 후속조치가 없다시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행정 당국 역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 소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를 활용해 10만7천606㎡ 규모의 ‘화정근린공원’을 조성, 지난달 2일 개방했다.

조성에 앞서 시는 건립 부지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포유류 2과 2종 ▲양서류 2과 2종 ▲파충류 1과 1종 ▲조류 9과 12종 ▲육상곤충류 20과 29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양서류에 법정보호종인 맹꽂이(멸종위기 2급)가 포함돼 있었다.

법정보호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가 높아 국가가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지정한 것들을 말한다.

멸종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광주 서구 화정근린공원 내 맹꽂이 서식지가 있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돼 차량 매연이 서식지에 퍼져 맹꽂이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성학기자

위험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장래에 멸종을 맞을 우려가 높은 야생 생물들로, 환경부가 지정한다. 성체 기준 몸 길이가 약 45cm에 달하

는 맹꽂이는 ‘쟁기밭개구리’라고도 불리며 땅 속에 서식한다.

특히 피부 호흡을 해 유해 화학 및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어 맹꽂

이 서식 여부는 환경 건강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최초 환경평가에서 맹꽂이 서식을 확인한 광주시는 2022년 정밀조사를 실시해 화정근린공원 부지에 14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시는 2023년부터 매년 10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서식지 환경 변화 및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맹꽂이가 잘 살고 있는지 여부만 살필 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맹꽂이가 발견 후 시는 이들이 한 데 모여 살도록 유도했고,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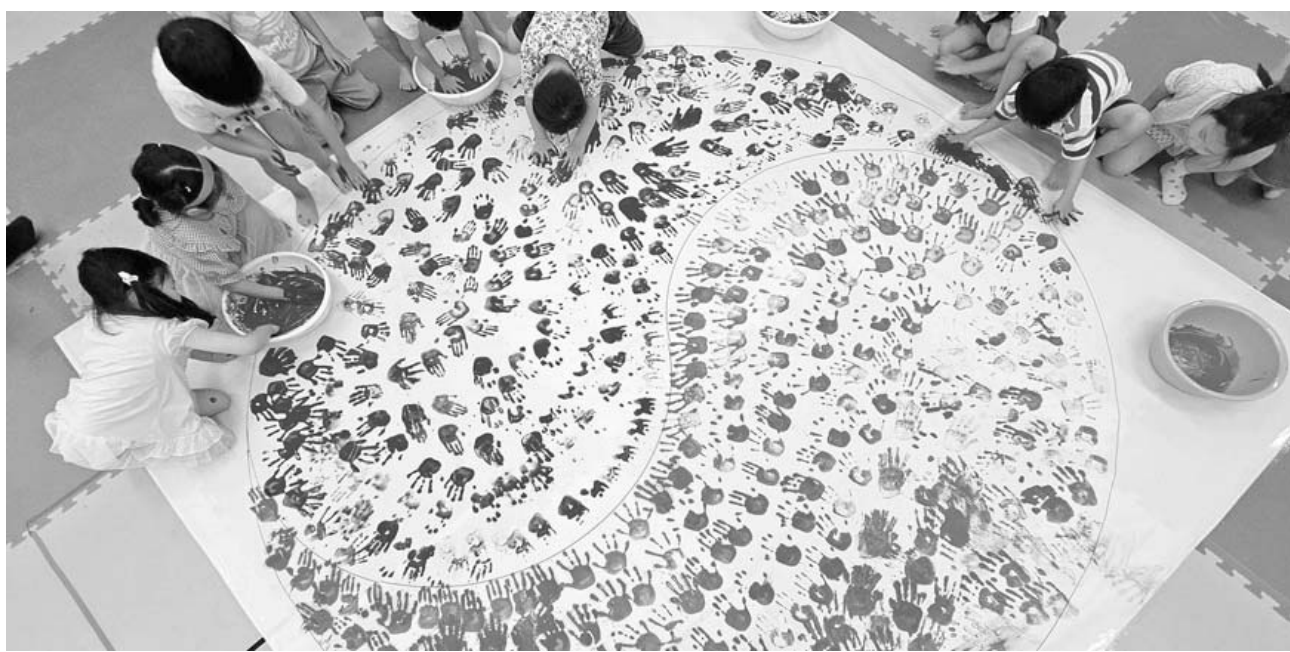
그러나 화정근린공원 내 맹꽂이 서식지

에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인근엔 주차장이 있어 차량에서 나온 매연이 서식지로 향하기도 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환경 단체에서는 맹꽂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생태보존위원장은 “맹꽂이는 피부로 호흡하기에 매연은 아주 치명적”이라며 “멸종위기종 물 한 데 모은 것까지야 아예 안되는 조치이냐, 이후 보존 대책이 미흡해 보여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서식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담당 용역 업체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도 “멸종위기종 보호 관련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성학기자



손도장으로 그린 태극 문양 재현절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 북구 청어린아침에서 아이들이 물감으로 태극문양을 완성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U대회 선수촌 사용료 ‘광주시 25억 부담’ 소송 종결

강제조정 수용...‘청산인 해임·선임 청구’는 내달 재개

89억원에 달하는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두고 청산법인과 대립했던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 같은 결정(강제조정)을 받아들여 2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청산법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강제조정 전 재판부는 지난달 28

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 비율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광주시가 청산법인 측에 25억원을 주라”는 취지의 조정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이날 종결됐다.

이로써 청산법인 해산과 함께 광주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의 배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가 직무 정지 상태인 청산법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의 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 다툼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다음 달 8일 재개된다.

한편 청산법인 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확정된 약 89억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9월11일 광주지법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최종 불발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안재영기자

광주세관, 2천800억대 환치기 조직 檢 송치

국내에 유학생으로 입국한 뒤 약 6년간 2천800억원 상당을 환치기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관세청 광주세관에 따르면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28)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중국인 공범 B(29)씨는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천8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소형 불법 환전상’을 하다 활동 반경을 넓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했는데, 이때부터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광주세관의 설명이다.

또 환치기 거래 수수료와 함께 해외에서 매입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수익대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도박자금 세탁 조직원 현행범 체포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광주 모처에 거점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금을 합법 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2명을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자금세탁에 이용한 컴퓨터, 대포폰, 금융계좌 접근 매체 등을 다수 압수했다. /안재영기자

檢, ‘승진 청탁 금품수수’ 치안감 징역 4년 구형

사건 브로커·전달 경찰은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

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9) 치안감과 제삼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각각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63)씨, 광주경찰청 소속 B(56) 경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B 경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앞서 2021년 12월께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A 치안감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경찰 승진제도를 악용해 정상적 경찰 공무원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 /안재영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